

## 제 3 절 일본의 진흥정책 동향

### 1. 政策의 기본방향

일본은 미국 등 구미국가에 비해 정보산업을 후발로 시작한 국가였으나 오늘날에 와서 그 수준이 거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보산업 발전정책이 그만큼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미국이 간접적인 지원방식이었던 반면 일본은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많이 고수하였던 데 기인한다.

일본의 전자·정보산업 발전정책의 골격은 1957년의 특정 전자공업 진흥 임시조치법과 1970년의 정보처리촉진법(당시 명칭은 정보처리진흥협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이를 근거로 여러 부문에 개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왔다.

일본은 1960년경부터 정보화를 추진하여 제조공정, 정형적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1970년대 정보화는 산업분야에서 生活分野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넓게 진전되어 지금은 정보시스템이 다른 공공 기반과 마찬가지로 경제, 사회 활동 전반에 걸쳐 필요 불가결한 활동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를 지원하는 정보산업은 급속한 정보 기술의 진보를 배경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일본 전체 경제중에 리딩산업으로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이후의 급속한 기술혁신에 의해 컴퓨터의 고성능화, 소형화, 저가격화, 멀티미디어화가 비약적으로 진척되므로써 컴퓨터는 대기업의 전산실뿐만 아니고 개개의 사원, 가정, 학교 등 모든 분야에 보급되었다. 그 결과 정보화는 지적활동의 생산성 향상, 신규산업의 창출기반으로써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활동 등의 비정형적 업무분야에 대한 일본의 정보화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실정이다.

'90년대에 들어와 정보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世界的인 규모로 크게 변화되어 변혁의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① 기술의 통합 등을 통해 정보기술이 급속히 진전되어 하드웨어의 비차별화와 비용 삭감에 따른 가격의 급락화가 진행되고 ② 정보시스템에 대한 user의 Needs가 정형적 업무에 대한 성력화, 합리화에서 의사결정 지원 등 비정형적 업무로 고도화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소프트웨어를 附加價値의 원천으로 하는 구조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통산성은 일본경제의 장기 발전기반을 담당할 정보산업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함은 물론, 정보산업의 구조개혁 촉진이 불가결할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정보화 관련 시책의 최중점 사업으로 채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도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산업구조의 재편을 위해 일본 정부는 신사회간접자본이라 불리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은 당초 전국을 일원적 독점 사업체로 유지해 왔으나, 전후에는 전전공사(NTT)가 국내통신을 담당하고, KDD는 국제통신을 독점해 왔다. 그러나 1985년 전기통신법과 NTT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신사업에 민간이 신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NTT가 민영화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NTT민영화 10년을 맞아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NTT분할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기통신심의회는 NTT의 3사분할과 장거리통신회사의 신규사업 및 지역통신분야에의 진입 허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올해 집권 자민당은 NTT분할 결정을 유보키로 결정하여 사실상 NTT분할은 1년정도 보류될 전망이다.

일본에서 전기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은 우정성으로써 산하에 통신정책국, 전기통신국 및 방송행정국을 두고 있다. 통신정책국은 고도 정보화 사회의 실현을 위한 유무선 통신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며, 전기통신국은 NTT, KDD 등 전기통신 사업체의 감독,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방송행정국은 방송관련 무선국의 감독, 뉴미디어의 개발, 보급, CATV의 개발, 보급을 담당한다.

또한 우정성은 전기통신 규제를 담당하며 정책자문을 위해 전기통신심의회, 전파관리심의회, 전기통신 기술심의회 등을 두고 있으며, 연구기관으로 통신총합연구소가 있다.

일본 우정성은 '84년이후 매년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정보통신 정책대강에서는 정보집중 완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정보통신을 통한 소비자중심의 사회형성, 멀티미디어 사회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 2. 정보화 정책

전자·정보 기술이 다운사이징, 네트워크화 등으로 진보되면서 국가·산업·사회·생활의 정보화는 국가 사회 기능의 효율화,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본은 총리 시정방침 연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자본의 합리적 투자 즉, 정보화 추진을 통해 경제의 창조적 혁신과 신흥산업 창출을 적극 추구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현상은 제조, 계산 등 정형적 업무처리에서는 어느 정도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기획, 의사결정 등 비정형적 업무처리에서는 미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정보화 수준에 뒤져 있기 때문으로 국가 사회 즉,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고 산업, 가정, 생활 등 민간부문의 정보화 촉진 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새로운 의미와 일본의 정보화 지체 현상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일본은 국민 모두가 정

보화 추진에 더욱 몰두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 사고방식은 아래와 같다. 우선, 수요자의 다양한 니드에 근거하여 급속한 기술진보의 성과를 최대한 관리해 가면서 자신의 업무생활 등을 고도화해 나감으로써 수요자측이 이니셔티브를 갖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수요 정책이 필요하다. 공급정책으로는 다종 다양한 수요자의 니드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활발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추진하며, 경쟁을 통해 고도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가. 신사회 자본의 구축

일본은 장기간의 경기침체 극복과 고도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산업구조의 재편을 위해 일본정부는 신사회간접자본이라 불리는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을 대규모로 전개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정보통신 부문을 육성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경제구조의 개선, 환경 등 제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정성과 통신성의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중인 신사회 간접자본의 구축은 2010년까지 전국민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통신망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통신망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 지역간 정보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가입자망까지 구축이 추진된다.

신사회자본 계획에 있어 광통신망 구축의 대부분은 민간에 의하여 추진하며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추진하는 광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 또는 세제상의 지원,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교육, 의료 공공부문의 첨단 기술과 응용프로그램의 개발로 신사회 자본에 대한 수요 창출을 도모하는데 국한되게 된다.

이러한 신사회자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관방장관, 통신성장관, 우정성장관 등이 참여하는 고도정보통신망추진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과 정보통신 기반 고도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토록 하였다.

## 나. 공공분야의 정보화 추진

### (1) 행정 정보화

신사회자본의 구축을 계기로 정부가 정보통신부문의 최대 수요자로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투자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정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신성은 신산업창조 데이터베이스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의 실현을 위해 각 성청의 모델이 되는 업무의 정보화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도 정보화를 촉진하여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IC카드를 이용하여 행정, 의

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한 모델사업을 실시한다.

'94년에 일본은 정보통신 기반 정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도정보통신망추진본부 설치하였고, '95년에는 고도정보통신사회를 위한 기본방침을 제정하였다.

각성청은 행정정보화 추진계획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과 공통실시계획으로 나누어서 작성되게 된다.

#### (가) 행정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 추진체계 구축

제5차 임시 행정 조사회 보고서에서는 행정 정보시스템은 각 성·청별로 추진하되 시스템설치의 합리화 및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표준화와 통합추진의 주체로서 행정정보시스템 기획본부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총무청에서는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각부처별 연락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정보 DB화, 통합이용, 행정정보 통신망 구축, 데이터 보호, 안전대책, 요원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85년 행정 정보 통합이용 요령을 제정하고 1987년 DB가 구축됨에 따라 각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제공 창구가 정비되었으며 행정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멀티벤더 오픈시스템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각 부처의 상이한 기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형 시스템을 통해 상호 접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1989년 행정개혁 대강으로 OSI의 도입추진 및 이용 가이드북을 작성하였다.

컴퓨터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별 전문가로 공동이용 연구회를 구성하여 기초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으며 컴퓨터 이용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청에서는 컴퓨터 공동이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령 검색시스템 개발운영, 국무회의 정보 검색 시스템 개발운영, 급여공제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운영, 인사관리 사무처리 시스템개발운영, 특정부처 개별 업무처리시스템 운영지원 등을 하고 있다.

#### (나) 통산성 행정정보시스템 사업추진

통산성에서는 정책 및 산업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1965년 통산성 정책정보 데이터 베이스(PPIS), 신산업 창조 데이터 베이스 등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또한 통산성 자체 정보화와 관련하여 행정의 Paper Less화, 관계 성·청 및 산하 지방검사소 등을 연결하는 통산성 정보네트워크 (LAN)를 구축하고 있는데 '94년에 1억 5,000만엔이 투입되었으며 '95년에는 322억 5천만엔이 책정되어 있다.

(다) 차세대통신망 파일럿 모델사업

우정성과 NTT에 의해 설립된 PNES(차세대통신망이용고도화협회)는 관서문화학술도시를 대상으로 차세대 통신망의 실용실험 및 기반시스템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차세대통신망 파일럿모델사업에 의해 관서지역에서는 광통신망을 통해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최근 PNES는 명칭을 멀티미디어통신협회(FMC : Foundation for Multimedia Communication)로 변경하였다.

(2) 교육학술 정보화

1985년 臨敎審의 1차 보고서에서 정보화 대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후 2차, 3차보고를 통해 인텔리전트 학교 구상 등 발표되었다. 1987년 敎科審에서 교육정보화가 사회정보화의 주체로서 그에 대한 적극 추진 방침이 설정되었으며, 1989년 신학습 지도요령 고시에 따라 1992년 소학교, 1993년 중학교, 1994년 고등학교에서 정보화에 대한 본격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이용에 대한 소양 구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컴퓨터의 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1대를 목표로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9개의 정보처리 교육센터 설치, 교육용 컴퓨터 렌탈(임대)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일본개발은행 '94년 금리 4%로 27억7,000만엔 지원)

'95년에는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이용 촉진센터의 내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원격교육 등 학교의 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실험 등을 실시한다.

또한 '94년부터의 교육용 컴퓨터 정비계획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퍼스컴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용 컴퓨터 임대사업에 대한 저리금융 조치를 추진한다.

(3) 문화 정보화

모델 전자도서관을 활용하면서, 분산하여 소재한 전자화된 문헌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개발한다. 모델 전자도서관은 도서관의 대량의 장서가 전자화되어 축적되어 있으므로 고속의 검색이 가능한 전자도서관을 실용화하기 위한 모델 사업시설이 있다.

(4) 의료, 복지의 정보화

병원가의 의료화상 및 데이터의 온라인 교환, 광자기디스크와 IC카드 등 매체가 다양화되어 의료분야

의 정보량 증대가 현저하다. 특히 CT나 MRI 기술 이용 등으로 의료영상 정보가 대폭 증가되고 광자기 디스크로 보관과 컴퓨터에 의한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점 등에 착안하여 대도시 종합병원, 지방도시 종합병원, 농어촌 및 도서지방의 진료소 등을 연결해 온라인으로 영상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모델사업을 추진한다.

## 다. 민간분야의 정보화 환경조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진보 및 정보화에 의해 비정형적인 지적 활동의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산업전체에 관련된 정보화에 대해 적극적인 시책을 전개한다. 또한 민간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컴퓨터 안전대책, 프라이버시 대책 등의 환경정비를 계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 가정, 개인 등 민간이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장기저리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의 합리화, 효율화를 기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개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정보산업의 수요창출을 도모한다.

### (1) 산업의 정보화

#### (가) 생산·조달·운영 지원 통합 정보시스템 개발

설계, 개발에서 조달,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공유, 활용하는 시스템의 표준화 및 연구개발을 실시한다. 또한 아시아제국의 기계공업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전자설계 생산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 (나) EDI의 보급 촉진

제조, 유통, 금융 등의 관련업무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모델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업무의 EDI 파일럿 모델의 조사 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 (다) 컴퓨터 임대에 의한 민간의 정보화 투자 촉진

민간의 정보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컴퓨터 임대사업에 대해 컴퓨터 매각 손실준비금의 인정 등 세제조치와 컴퓨터 보급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조치를 실시한다.

### (2) 정보기기 등 상호 운용성의 확보

정보 네트워크화의 추진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기기 등의 상호 운용성 확립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3)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의 향상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 바이러스 대책기술의 개발 등 안전 대책의 내실을 기한다.

(4) 창조적 경제발전 지역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 등의 정보기능 강화

창조적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등의 정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체 등의 정보관련 시설의 정비에 대해 보조를 실시한다.

(5) 정보화에 대한 세제지원

기업이 통합시스템 구축시 그 보수에 필요한 준비금을 적립, 손금화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비용의 10% 까지 통합시스템 보수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 등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용시 일정률을 준비금으로 적립, 손금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금의 10%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컴퓨터는 시스템화 및 복합화 제품으로 고가인 관계로 보급에 문제가 있어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치로 일반상각 외에 취득가액의 4분의 1을 특별상각 한다.

〈도표 V-3-201〉 정보화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 (통산성 운영)

자 금 종 류	지 원 조 건	지 원 실 적 (억엔)		
		'90년	'94년	증 감
○ NTT 무이자 융자(NTT)	뉴미디어 커뮤니티사업 등에 무이자	700	1,000	+300
○ 정보처리통신시스템화 (개발은행)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 (금리 4%)	1,300	2,300	+1,000
○ 지역정보화(개발은행)	지역정보화 사업 (금리 4%)	1,510	2,280	+770
○ 지역정보화 (동북개발 광고)	"	1,620	2,400	+780
○ 정보화 기반조성 (중소기업 금융 광고)	중소기업 정보화	150	600	+450
○ 중소기업 정보화 (국민 금융 광고)	"	290	500	+210
합 계		5,570	9,080	+3,510

### (6) 컴퓨터 안전대책 추진

정보화 진전 특히, NETWORK화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 대책수립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민간의 정보이용을 원활화하게 할 수 있다.

- 시큐리티 대책 시스템 연구개발
- 시큐리티 대책추진 : 피해실태 파악, 재발방지 등 조사연구
- 정보처리 안전대책 지원 : 안전대책 시스템 (부정입력 방지 장치 등) 구입자 지원

## 3. 정보산업 진흥을 통한 고도정보화 사회 실현

### 가. 정보처리촉진법 제정, 시행

컴퓨터의 보급촉진과 고도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통촉진, 정보처리 및 서비스 사업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정보화사회를 실현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국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동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 계산기 이용 고도화 계획 수립 시행
  - 정보처리 진흥을 위해 특히 개발, 보급을 촉진해야 할 컴퓨터 선정
  - 정보처리 진흥을 위해 특히 개발, 보급을 촉진해야 할 프로그램 선정
  - 컴퓨터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목표의 설정
  - 계획 수립시에 관계장관 및 심의회 협의
  - 통산성 장관은 계획 수립시 공표를 의무화
- 컴퓨터 연결 사용에 관한 지침 작성 공표
- 자금조성, 지원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 IPA)
  - 컴퓨터 이용 고도화 계획 등 지원
- 프로그램 조사 (IPA) 열람 : 중복개발 억제, 유통 촉진
- 정보처리 기술자 시험 : 기술인력 양성
- (재)정보처리 진흥 사업협회 구성 운영

### 나. S/W 개발 및 시장환경 정비



### (1) 컴퓨터 이용자의 S/W개발 촉진

제조업, 유통업 등 일반 사업자가 자기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S/W를 개발시 필요한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94년 4,700억엔으로 개발은행 및 동북금융공고를 통해 3%의 특리로 지원한다.

### (2)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정비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계약관계의 명확화와 소프트웨어 가치의 적정한 평가에 기초한 가격 설정에 대한 산업구조심의회 정보산업부회의 보고를 구체화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주요 검토사항, 시스템 개발 공정의 구분과 작업내용 정의 등의 표준이 되는 시스템 개발 거래의 공통 프레임의 보급을 추진한다.

### (3) 프로그램 개발 준비금 제도의 연장

S/W기업의 개발자금 보전을 위해 S/W 및 서비스 제공액의 일정분을 적립토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 개발 준비금 제도를 연장하여 실시한다. 현재는 미성숙이지만, 고도 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불가결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의 공급기반 강화를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적립금의 기본 S/W는 매출액의 10%, 범용 S/W (IPA 등록)는 매출액의 25%, 고도의 S/W 및 서비스는 개발비용의 10%를 적립, 손금 처리토록 한다.

- 범용 프로그램 개발 준비금의 연장
- 소프트웨어 고도화 기반정비 준비금의 연장
- 데이터베이스 준비금의 연장
- 통합시스템 보수준비금의 연장

### (4) 신규산업 창조 소프트웨어의 개발

고도 정보화사회의 중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신규산업의 성립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산업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을 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고품질이면서 선도적인 소프트웨어의 위탁개발을 실시한다.

## 다. 인력 양성

### (1) 정보대학교 구상 등의 추진

향후 정보화를 담당할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고 인력을 육성기 위해 중앙 정보처리교육연구소를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전국의 대학, 정보처리기관과 제휴하여 우수한 교육방법을 보급토록 한다.

### (2) 정보처리 기술자 시험실시

정보처리 기술자가 구비해야 할 기술수준을 공표하고 시험을 실시한다.

이의 주관은 정보처리 개발협회에서 하며 지난 '66년 이래 466만명 응시하여 42만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 (3) 교육분야의 컴퓨터 이용 촉진

- 교육용 컴퓨터에 관한 기술조사
- 정보활용 능력 향상 S/W 개발지원
- 교육용 컴퓨터 보급지원

### (4) 정보화 인재육성용 CAI 개발

고도의 정보화 인재 육성을 위한 CAI 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한다.

### (5) 교육내용 개선

문부성에서는 정보물리학회에 위탁개발을 의뢰하여 정보전문학과의 표준 커리큘럼을 개발하였고, 일반 정보처리 교육 및 정보시스템학에 대한 표준 커리큘럼을 개발, 각대학에 보급하였다.

### (6) 사립대학 등의 시설 확충 및 정보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

구입 단가 4,000만엔 이상의 연구시설과 교육시설에 대해 구입액의 50%를 보조하며, 컴퓨터구입 등 정보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구입액의 50%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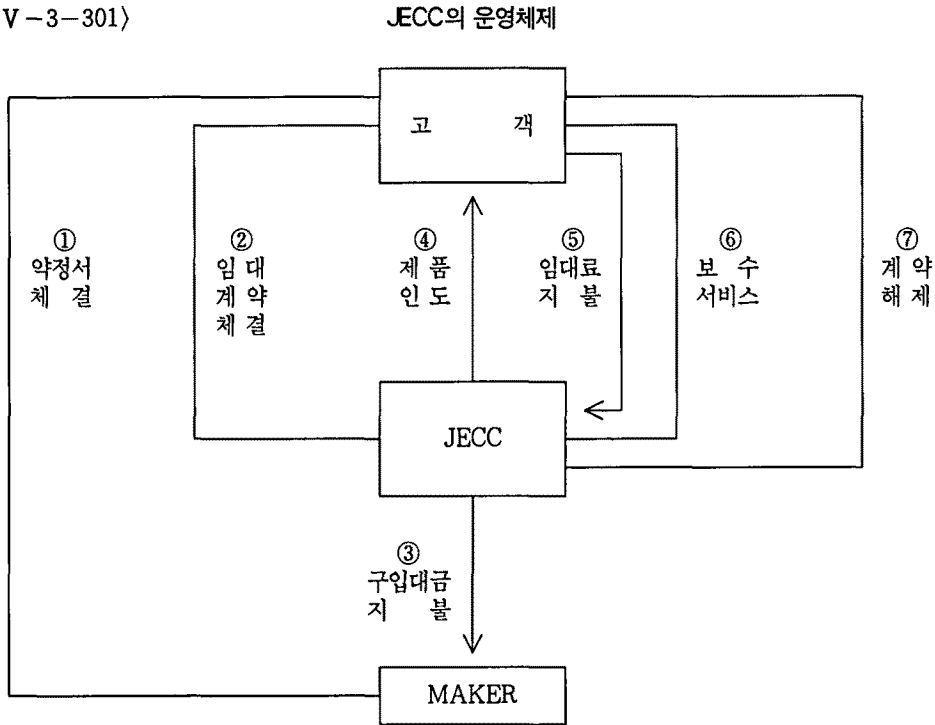
### 라. 컴퓨터 보급 촉진

컴퓨터의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범용컴퓨터 생산업체는 개발과 생산에 전력 투구하도록 하며, 판매는 업계 공동으로 렌탈회사 설립하여 정책금융 지원으로 유리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사업의 주체는 일본전자계산기(주) (JECC)로 1961년도에 히타치, NEC, 도시바 등 7개사와 정부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현재 자본금은 657억엔에 이르고 있다. JECC의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정책금융으로 지원하고 있다.

JBL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손해 보험업무, 인텔리전트 빌딩의 클린룸 공사 등의 부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도표 V-3-301〉



### 마.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공급기반의 정비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멀티미디어 인재 육성센터,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등을 활용한 첨단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제작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의 정비를 도모함과 동시에 영상 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한다.

멀티미디어 지원센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타의 영상, 음성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조합하여 표현력이 풍부한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제작을 위한 지원 시설이 있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인재 육성센터는 소프트웨어 제작자 대상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 연수를 행하기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정보센터는 멀티미디어 교육 강화와 정보 전송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기업 등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용이하게 편집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